

HELPERS

VOL. 12 (2017. 03 ~ 2018. 0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 04 개교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 10 치과병원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지원

NEWS

- 12 학교 소식
- 16 교실 소식

RESEARCH FOCUS

- 20 권용대 교수
- 22 이상천 교수

PEOPLE

- 24 박영국 부총장 인터뷰
- 26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http://dental.khu.ac.kr>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 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다시 한 번 웅비의 나라를 펼쳐야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시점



HELPERS 1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치과대학은 1967년에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치과대학으로서, 지난 50년 역사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3,411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했고, 819명의 박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이를 미래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학과 동문회가 연합하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위하여 어려운 개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이 치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참했고, 교수들도 이에 발맞추어 발전기금을 약정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치과대학의 힘은 무엇보다도 동문, 교수, 학생들의 단합된 힘과 애교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치과대학은 그 동안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 교육, 대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십년 동안 여러 기관 평가를 통해 노력들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교수들이 노력으로, 기초학문은 물론 임상치의학의 연구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를 기회로 올해부터 국제적 수준의 명문 치과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거교적인 위상제고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권금록 원장

물론 예측되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은 있으나, 우리가 더 노력하면 구성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2015년에 다시 치과대학으로의 학제전환을 통해, 다시 한 번 웅비의 나라를 펼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자율적 교육체계의 확립과, 임상역량 기반교육의 강화 및 융·복합 및 특화된 연구역량의 수월성을 통해, 글로벌 치과대학으로 도약하고자 담대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난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 특히 동문,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제15대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권금록

개교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성장은 교수, 학생, 동문의 노고와 지원으로 이루어져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개교 50주년 기념식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과대학)이 2017년 10월 21-22일 평화의 전당에서 5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21일 개최된 50주년 기념식은 배아란 치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희찬 경희대 중앙박물관장의 경희대학교 역사보고와 황의환 50주년 기념사업단장(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의 치과대학 연혁보고, 치과대학 50년 UCC상영, 치과대학 50년사 헌정 등이 이어졌다. 2부 만찬 및 축하공연은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즈밴드의 공연이 준비되었다.

Kyung Hee University (President Choue Inwon) School of Dentistry held its 50th anniversary ceremony and academic conference from October 21st to 22nd, 2017 at the Peace Hall. The 50th anniversary ceremony, held on October 21st, was divided into part 1 and 2 with Professor Pae Ahran as compere. In part 1, Kim Heechan, Chair of Kyung Hee Central Museum, introduced the history of Kyung Hee University,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dental school history report, 50th anniversary dedication, video attribution and so on, presented by Hwang Eui-Hwan, Director of Special Events and Professor. In Part 2,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the 50th Anniversary Ceremony



▲ 축사를 전하는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 사회를 보는 안수진 교수

22일에 거행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Past 50 Years, Coming 50 Years’를 캐치프레이즈로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치과대학과 치과대학 동창회는 지난 2016년부터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였다.

오전에는 최대균(명예교수, 현 최대균·남광호 치과) 원장, 서병인(BISCO 회장) 박사, 이승중(연세치대 보존학교실)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각각 △총의치의 실패와 대책, △Myths & Facts about Universal & Zirconia Bonding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치과의사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오후에는 △최경규(경희치대 보존학교실) 교수의 ‘치아색 인레이의 올바른 와동형성과 접착’ △이영준(로스 윌준치과) 원장의 ‘Back to the basic of orthodontic diagnosis and its future’ △장성민(웰치과의원) 원장의 ‘새로운 임상적용과 산업화로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권용대(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의 ‘To infinity and beyond : 상악동 골이식의 해부, 병리적 제한을 넘어서’ △이성복(경희치대 보철학교실) 교수는 ‘Intelligent software solutions from treatment planning to the final restoration with

dinner and various performances were organized by a jazz band from the Department of Postmodern Music.

Held on October 22nd, the academic conference consisted of 8 lectures in total with a catch phrase of ‘Past 50 Years, Coming 50 Years’, while the alumni had organized a joint preparatory meeting since 2016. In the morning, Dr. Choi Dae-Gyun, Dr. Byoung In Suh, Professor Lee Seung-Chong lectured on topics such as △Failure and Countermeasures of Total Dentures, △Myths & Facts about Universal & Zirconia Bonding, △Dentists Who Are Loved by the People, respectively. In the afternoon, △Professor Choi Kyoung-Kyu (Kyung Hee College of Dentistry,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presented ‘Correct Cavity Formation and Adhesion of Tooth Colored Inlays’, followed by △Dr. Lee Young Jun’s (Roth Will Jun Dental Clinic) presentation on ‘Back to the basic of orthodontic diagnosis and its future’, △Dr. Jung Sung Min’s (Well Dental Clinic) ‘Can We Escape the Existing Framework with New Clinical Applications and With Industrialization?’, △Professor Kwon Yong-Dae’s (Kyung Hee College of Dentistry,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o Infinity and Beyond: Anatomy of Maxillary Sinus Bone Transplant, Going Beyond Pathological Limitations’, and △

the dental remodeling philosophy’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박영국 치과대학 학장(현 대외협력부총장 겸 재정예산처장)은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치과대학이라 지원 여건이 부족했지만 인적 자산과 우수한 학생교육으로 5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치과대학이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했다. 덧붙여 “최근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에서 본교가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상해 교통대학대학평가에서 세계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며 치과대학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50여년 만에 빠르게 성장한 치과대학의 배경에는 외부적으로 총동창회의 탄탄한 지원과 내부적으로는 교수진 및 학생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개원가의 쉽지 않은 상황임에 물불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는 동창회의 지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50년간 동문,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대의 교육 이념인 ‘사람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대학’을 기초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희환 50주년 기념사업단장(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은 “진행 중인 50년사 편찬 뿐 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50주년 행사를 통해 치과대학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rofessor Lee Sung-Bok’s (Kyung Hee College of Dentistry,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Intelligent software solutions from treatment planning to the final restoration with the dental remodeling philosophy.’

Park Young Guk, Dean of College of Dentistry(current Vice President for External Cooperation), said, “In 1967, we had limitations in support system as Kyung Hee College of Dentistry was the nation’s first private dental school only starting with 50 students, yet here we are welcoming our 50th anniversary today, built through excellent human assets and education along the way.” Proudly adding, “Recently, Kyung Hee University ranked top 100 World Universities, evaluated by one of top three world university evaluating institutions; Kyung Hee also ranked top 3 World Universities evaluated b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He also said, “For us to achieve this kind of success within 50 years, the alumni’s donations built a strong foundation, where our professors and students joined worked hard alongside. I am proud to say that our success is based on alumni, professors and students’ shared commitment and love for our dental school. Especially because the alumni association never failed to continuously support the school regardless of the situations they were in. Moreover, for the past 50 years, all the members of alumni, professors, students, faculty and staff have been faithful to their roles. Our dental school will always aim for our motto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building the culture each day.

Hwang Eui-Hwan, Director of Special Events, said, “On



▲ 강의 중인 최경규 교수



▲ 강의 중인 권용대 교수



▲ 50주년 기념사업단 (배아란 교수, 황의환 치과병원장, 안민호 총동창회장, 박영국 학장(현 대외협력부총장), 박기호 교수)

안민호 총동창회장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학과 동창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훌륭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각 기수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줘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물론 저희 동창회는 외부적으로 도움을 주는 위치라고 본다. 학교의 발전은 동창회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교직원 분들과 매년 들어오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배아란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학술대회는 오늘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발전에 이바지했던 분들, 동문 뿐 만 아니라 후학들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을 연자로 초청했다”면서 “본교의 50주년 기념행사지만 타 동문의 치과의사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인원이 모이는 학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준비에는 동문 기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6월 치과대학 15회 졸업생(81학번)과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신흥이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지난 1

top of compiling the 50-year history, we are planning to carry ou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raising dental school's reputation and brand value as well.” Alumni Association President Ahn Min-Ho added, “As we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ur dental school and alumni association worked closely together in preparing a great event. Particularly, the alumni donated for school development fund by their graduating class, so we were able to prepare the event smoothly. Our alumni association is in a helping place of course;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does need support from the alumni, but that is only possible with the help of the staff, faculty members and excellent students that come in every year.”

Pae Ahran, Chief of Preparatory Committee, said, “For this academic conference, we invited those who helped and contributed Kyung Hee College of Dentistry to become who we are today, and alumni and lecturers who are mentors to numerous dentists. Although it is Kyung Hee dental schools' 50th anniversary, we prepared with passion and hope so that dentists from other schools could also join and enjoy.”



▲ 50주년 기념식



▲ 치과대학 50주년 UCC 상영

월 1일 이후 기금조성을 통해 마련된 총 4억 4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기부금은 치과대학 50주년 기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치과대학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행사, 학술행사, 역사편찬사업, 치과대학관 지하4층에 갤러리와 역사전시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치과대학관 지하 4층 갤러리는 독립된 장소로 이용자에게 해방감과 독립감을 주기 위한 장소로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될 계획이다.

치과대학 동문들의 기부는 이번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1988년에는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축에 1억여 원, 1992년 9월부터는 3억 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확보했으며, 201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으로 편제가 개편되면서 필요한 예과 1,2학년의 강의실, 강당, 임상수련실 개보수에 필요한 5억 원도 경희대 치과대학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한 바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박영주 치과대학 15기 동기회 회장과 박능석 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정진 전 경기도 치과 의사회 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치과대학 15회 졸업생과 이용익 (주)신흥 대표가 참석했다.

박영주 동문은 “저희 동기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지원받는 등 혜택을 많이 받았고, 모교에 교수로 두 명이나 재직 중이어서 진작에 발전기금을 내야 했는데, 졸업 30주년과 치과대학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전달

Alumni's donation was a tremendous help preparing this event. Last June, members from the 15th graduating class (started school in '81) and Shinhung Co., Ltd., manufacturer of dental and medical devices, each donated 100 million won. In addition, after January 1st, the total amount of 440 million won was raised through fundraising. Donations are planned to be used in upcoming 50th anniversary special events and in develop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special events include projects and events as memorial events, academic events, history compilation projects, and construction projects of gallery and history exhibition on the B4 floor at the dental school building. The gallery, as a separate venue, will display students' artwork in providing a sense of freedom and independence.

Nonetheless, dental school alumni donations were not only limited to this time. They not only raised 100 m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dental school building and its affiliated hospital in 1988 and 300 million won for the development fund since September 1992, but also 500 million won needed for new classrooms, lecture halls and clinic training room renovation as the education system shifted to a 6-year program in the year of 2015. Park Young Ju, Alumni President of the 15th graduating class, Park Neung Seok, Vice President of Alumni Association, Jung Jean, former President of Gyeonggi-do Dentists' Association, Shin Dong Keun, member 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15th graduating class, and Lee Yong Ik, CEO of Shinhung Co., Ltd. all joined the Delivery Ceremony

하게 돼 기쁘다”며 “모교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신흥은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치과대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매 학기 천 만원 이상의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다. 기부액은 3억 6,015만원(1억 원 상당의 (주)신흥 주식 1만 주 포함)에 달한다.

박영국 치과대학 학장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나눔에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글 치과대학 백장현

of Development Fund. Alumnus Park Young Ju said, “Our graduating class received scholarships and other privileges when we were students. Two of them are current professors here so we felt an even stronger need to donate. I am glad to deliver the development fund in celebrating our 30th anniversary of graduation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I want my alma mater to grow even more.” Moreover, Shinhung Co., Ltd. has been continuously donating development funds and practicing sharing to our dental school, as donating scholarships worth over 10 million won each semester, amounting up to 360,015,000 won (including 10,000 shares of Shinhung Co., Ltd. worth 100 million won). Dean Park Young Guk said, “Your sharing and interest in school are tremendous help for the development”, showing great appreciation to the donors.

By Shin, Seo-young / School of Dentistry

치과병원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지원



▲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광장

세계인의 축제, 제 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패럴림픽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원장 황의환)은 전국 치과대학 병원 중 유일하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다. 의료지원단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대회기간 내 발생하는 환자안전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의 의료지원단은 구강외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의 교수와 수련의로 구성되었다.

올림픽에는 보존과 최경규 교수, 보철과 권국록 교수, 노관태 교수, 홍성진 교수 및 보존과 3년차 수련의를 위주로 10명의 의료지원단이 구성되었고, 패럴림픽에는 구강외과 권용대 교수와 소아치과 이효설 교수, 남옥형 교수가 파견되었다. 운동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외상에 대비하기 위해 구강외과와 보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또한, 패럴림픽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을 고려하여 소아치과 의사들이 패럴림픽을 맡게 되었다.

평창올림픽 의료지원단은 평창과 강릉에 위치한 폴리클리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패럴림픽에서는 평창만 운영). 아이스하키 경기는 경기의 과격성을 고려하여 치과 의사가 상주하였다.

진료내용은 경기 중의 외상, 경기용 마우스가드 제작, 치통 등이며, 치과치료를 원하는 선수들과 코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클리닉에는 두 개의 진료실, 소독실, 방사선촬영실,

기공실 등을 갖추어 거의 모든 치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의료진은 2교대로 일하는데, 치과의사는 하루에 4~5명 정도가 번갈아 근무하였으며, 치과위생사는 4명이 2명씩 번갈아 일하였다.

최경규 교수(치과병원 기획진료부원장)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대표 의료진으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의료지원단 파견은 병원 홍보 등은 고려하지 않은 보람과 의미를 위해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성심성의껏 하자는 뜻을 지원단에 당부했다. 시간 등 현실적 여건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글 치과대학 이효설



▲ 권용대 교수와 패럴림픽 선수들

평창 패럴림픽 자원봉사 체험기

| 소아치과 남옥형 |

2018년 3월 14일에서 3월 18일까지 5일에 걸쳐 평창 패럴림픽에 치과 진료 자원 봉사를 다녀왔다. 근무지는 평창 패럴림픽 선수촌 폴리클리닉 지하 2층에 위치한 치과진료실이었다. 치과 유닛 체어는 총 2개였으며, 자체 기공실과 접수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근무 스케줄은 총4명의 치과의사가 2명씩 2조로 나뉘, 오전 근무(오전9시-오후3시), 오후 근무(오후3시-오후9시)로 번갈아 가며 하도록 짜여 있었다. 나는 구강악안면외과 권용대 교수님과 한 조가 되어 5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올림픽 기간에만 사용되는 임시 건물치고는 생각보다 내부도 잘 구성되어 있었고, 치과 재료도 부족함 없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 평창 패럴림픽 폴리클리닉 / 치과진료실

첫 날 출근하자마자 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란 출신의 시각 장애를 가진 스키 종목 선수였다. 내부 분위기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바로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언어의 장벽으로 치료하는 내내 매우 힘들었다. 특히 치과용 국소 마취를 시행한다고 설명해줘야 할 때, 적절한 영어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문득 "I will freeze your teeth. Is it Ok?" 라는 문장이 떠올라 말했더니 그 환자가 막 웃으면서 긴장감도 풀리고, 치료도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5일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올림픽 기간이니 치아 외상 환자가 많을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약 90% 정도의 환자가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고 싶어 했고, 불행하게도 나의 진료기간에는 외상환자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다.



▲ 이란 스키선수 치료



▲ 스웨덴 선수에게 마우스가드 장착 후 기념사진 촬영

2017학년도 교원 인사

신임교수발령

- 치과보존학교실 장지현 조교수 (A) 2017.03.01.
- 치과보존학교실 이진규 조교수 (A) 2017.03.01.
- 치주과학교실 홍지연 조교수 (A) 2017.03.01.
-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조교수 (A) 2017.03.01.

연구년

-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김정희 교수 (2017.09.01.~2018.02.28.)

해외장기연수

- 치과보존학교실 장석우 (2017.03.01.~2018.02.28.)
- 영상치의학교실 김규태 (2016.09.01.~2017.08.31.)

해외장기연수복귀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문지희 조교수 (A) 2017.03.01.

승진 (2017.03.01.)

- 이석원 부교수 → 교수
- 이재형 조교수 → 부교수

승진 (2017.09.01.)

- 권일근 부교수 → 교수
- 어규식 부교수 → 교수
- 노관태 조교수 (A) → 부교수
- 김경아 조교수 (B) → 조교수 (A)

재임용 (2017.03.01.)

- 이석원 교수, 이정우 부교수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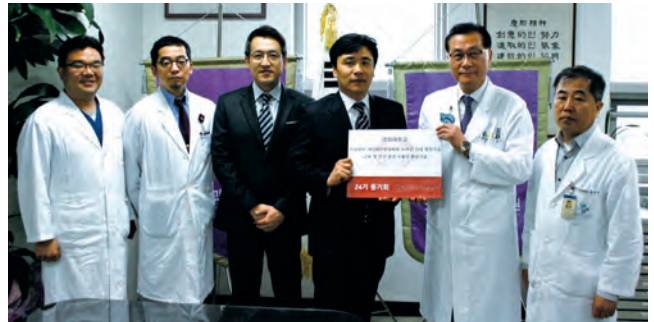
- 김선영 부교수 (2017.08.31.)

2017학년도 발전기금 전달식

경희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a(교육 및 연구 환경 수월성 확보)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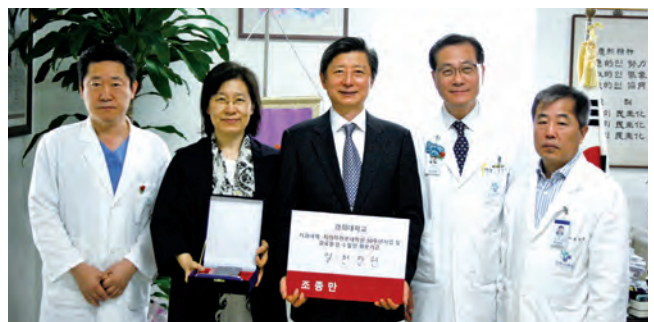
- 일 시 : 2017.03.10.(금)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최재영 동문



- 일 시 : 2017.04.06.(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치과대학 24기 동문일동



- 일 시 : 2017.05.11.(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이근혁 동문



- 일 시 : 2017.05.25.(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조종만 동문



- 일 시 : 2017.12.14.(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김영석 동문



· 일 시 : 2018.01.25.(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박창진 · 유성희 동문



· 일 시 : 2018.02.08.(목)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김은 동문



· 일 시 : 2018.02.28.(수)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김희성 동문

후쿠오카 치과대학 본교방문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에서 교수 2명, 학생 4명이 본교를 방

문하여 투어 및 교류회를 가졌다.

· 방문기간 : 2017.03.12.(일) ~ 03.18.(토) · 장 소 : 치의학관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특강 개최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성공적인 개원에 필요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 일 시 : 2017.03.20.(월) 08:00~09:00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특강자 : 박양제 (고운가이드 치과병원 봉직의 근무)

2017학년도 상반기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21세기 최신 치의학교육 추세와 대응전략 및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 변경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04.08.(토) ·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2017학년도 하반기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017학년도 하반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09.09.(토) ·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동대문구 청소년 진로체험



동대문구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직업에 대한 이해와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동대문구청 보건소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7.06.10.(토) ·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2017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등원식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경희의료원 치과병원과 강동경희대 치과병원 임상실습을 위한 등원식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7.07.21.(금)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대상자 및 인원 : 3학년 재학생 82명

타슈켄트대학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과의 MOU 체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타슈켄트 치과대학과 학생교류 및 학문적 정보를 교류하고자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다.

· 일 시 : 2017.09.21.(목)
·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동문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5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치의학 50년사 헌정식도 함께 실시하였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 연자,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팀의 축하공연으로 모교를 찾은 동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행사였다.

· 기념식 일시 및 장소 : 2017.10.21.(토) 평화의 전당 로비
·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 2017.10.22.(일) 평화의 전당

타슈켄트 치과대학 학생 방문 및 수료식



타슈켄트 치과대학이 본교에 방문한 교수 1명, 학생 6명의 수료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방문일정 : 2017.12.06.(수) ~ 12.15.(금)
- 수료식 : 2017.12.14.(목)
- 장소 : 대학(원)장실

2017학년도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 개최



치과대학에서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 자녀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의학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여 의학계 인력양성에 기여, 치과대학 교수진과의 만남, 강연,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1회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18.01.27.(토)
- 참석인원 : 35명
- 장소 : 치과병원 및 치의학관

치의학전문대학원 전기 학위수여식



치의학전문대학원 78명의 졸업자 및 수상자들에 대하여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 시 : 2018.02.13.(화) · 장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2018학년도 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예정자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내에서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8.02.23.(금) · 장소 : 치의학관 및 네오누리관

2018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식



2018학년도 치과대학 신입생 56명, 학사편입생 24명, 일반편입생 1명과 보직교수 및 전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8.02.28.(수) · 장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기초학교실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 교실동정

- 2017년 9월, 천유미 선생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 2017년 9월, 김정희 교수가 KIST에서 6개월 동안 연구년을 보냈다.
- 2017년 12월, 김정희 교수가 구강생물학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 2017년 12월, 김정목 교수가 구강생물학회 편집위원에 선임되었다.
- 2018년 2월, 김태훈 선생이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Ultra-fast DNA-based multiplex convection PCR method for meat species identification with possible on-site applications, Food chemistry, 2017;229:341-346. 포함하여 SCI 논문 3편을 게재하였다.

■ 학회발표

- 2018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Autophagy: Cellular function and its regulatory mechanism' 2017 UOS Life Science Symposium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구강생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17년 12월, 노대현 교수가 대한구강생물학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노대현 교수가 Differential development of facial and hind paw allodynia in a nitroglycerin-induced mouse model of chronic migraine: role of capsaicin sensitive primary afferents, Biol Pharm Bull, 2018;41(2):172-181 외 3편의 SCI 논문 발표하였다.

■ 학회발표

- 2017년 6월, 노대현 교수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Neuropathic Pain에서 'Role of capsaicin-sensitive primary afferents in a mouse model of nitroglycerin-induced peripheral hypersensitivities'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7년 11월, 여지희 박사과정학생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Neuroscience 2017에서 'Anti-nociceptive effect of dexmedetomidine, an alpha-2 adrenoceptor agonist co-administered with lidocaine in a mouse orofacial inflammatory pain model'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교실동정

- 2018년, 신제원 교수가 '알버트 벨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신제원 교수가 2017년 여름방학 동안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로 2017학년 간호학부 여름학기 기초의학과목을 강의하였다.
- 미국 아리조나 치대 박재현 교수(23기, 구강해부학박사)가 2017년도 구강해부조직학교실 International Scholar 교수로서 특강을 하였다.
- 미국 아리조나 치대 박재현 교수(23기, 구강해부학박사)가 AAO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Annual Session에서 특별강연을 하였다.
- 2017년 4월, 미국 아리조나치대 박재현 교수(23기, 구강해부학박사)가 미국 San Diego에서 열린 2017년 AAO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Annual Session 기간 동안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92명 대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Pacific Coast Society of Orthodontists (PCSO) Director로 선출되었다. 2024년에는 AAO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학술성취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주성숙 교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직지부 부의장으로 위촉되었다.
- 주성숙 교수가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 Korean division의 편집이사로 위촉되었다.
- 주성숙 교수가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총무이사로 위촉되었다.
- 구강해부조직학교실 외래교수인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Takano Yoshio 교수가 내한하여 치과대학 본과 1학년생들에게 법랑질에 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 2017학년도 1학기 치아형태학 실습에 외래교수들이 참석하여 실습 지도를 하였다.
- 외래교수인 김방수 선생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로 치과봉사를 하였다.
- 문종일 선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조재훈 선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교실동정

- 윤형문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 2018년 2월 인명록에 등재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 윤형문 교수가 세로토닌 6 수용체 활성 저해제를 포함하는 골형성 촉진용 조성물 등 특허 2건을 등록하였다.
- 윤형문 교수가 Smek promotes corticogenesis through regulating Mbd3's stability and Mbd3/NuRD complex recruitment to genes associated with neurogenesis, PLoS Biol, 2017;15(5):e2001220와 Tumorigenesis via Inhibition of Peroxiredoxin 6 Activity and Expression, Theranostics, 2017;7(15):3624 등 SCI급 논문 8편을 게재하였다.

■ 학회발표

- 2017년 4월, 윤형문 교수가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생명과학 심포지엄 'Novel insights of serotonin 6 G-protein-coupled receptor in the skeletal system'에서 강연하였다.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학위수여

- 2017년 2월, 김은지, 이진선 선생이 허정선 교수로부터 석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 2017년 8월, 노미희 선생이 문지희 교수로부터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Mussel-inspired poly(L-DOPA)-templated mineralization for calcium phosphate-assembled intracellular nanocarriers, Colloids and Surfaces B: Biointerfaces, 2017;157:215-222 외 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7년 10월, 허정선 교수가 김성훈, 김은철 교수와 함께 골 식립형 투약 임플란트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 연구비 수주

- 이상천 교수가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2017.6.~2019.12.)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이재형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2017.06.30.~2021.06.29.)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7년 10월, 이상천 교수가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Drug Delivery Summit 2017 'Nitric Oxide-Releasing Self-Assembled Nanoparticles as a Chemosensitizing Agent for Improved Anticancer Activity' 에서 발표하였다.
- 이재형 교수가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for Molecular Biology에서 'Analysis of transcriptomic profiles of beagle bone tissues identified novel long noncoding RNAs'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이재형 교수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포스트게놈 심포지움 'Analysis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data in biomedical research'에서 강연하였다.
- 이재형 교수가 Pacific Symposium on Biocomputing 2018에서 'Identification of a novel TSC2 mutation in a patient with tuberous sclerosis complex'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교실동정

- 2017년 3월, 류재인 조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7년 3월, 류재인 교수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표준화분과 구강건강 소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 2017년 4월, 류재인 교수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사로 위촉되었다.
- 2017년 10월, 류재인 교수가 보건복지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부단장으로 위촉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영국 NHS의 치과의료보장 개혁 동향' J Korean Acad Oral Health 학진등재지에 논문 1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류재인 교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7.12~2018.05)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7년 10월, 류재인 교수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외래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규모와 추이'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2017년 12월, 류재인 교수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와 영국치과의료제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상교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7년 3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제9차 대한양악수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류동목 교수는 정기학술대회의 좌장을 맡았다.
- 2017년 4월, 이백수·권용대·이정우 교수가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열린 '제58차 대학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고, 권용대 교수는 강의하였다.
- 2017년 5월, 권용대 교수가 대전 선치과병원에서 열린 '상악동 골이식술과 합병증 대처'에서 강의하였다.
- 2017년 5월, 이백수·권용대·최병준 교수가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7 1st ITI Academy'에 참석하였다.
- 2017년 6월, 권용대 교수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열린 '2017년도 제11차 대한류마티스학회 류마골대사연구회 연수강좌'에서 강의하였다.
- 2017년 7월, 이백수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Advanced course of sinus graft'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2017년 7월, 권용대 교수가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34주년을 맞이하는 개원의와 함께하는 의학연수교육'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2017년 8월, 이정우 교수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열린 '제6차 미세수술연수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공동개최)'에 참여하였다.
- 2017년 9월, 지유진 교수의 강동 경희대 치과병원 병원장 취임식 및 기념행사가 있었다.
- 2017년 9월, 이정우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구강암 테마 연수회(Oral cancer Theme Workshop)'에 참여하였다.
- 2017년 10월, 이덕원 교수의 강동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장 취임식 및 기념행사가 있었다.
- 2017년 10월, 최병준 교수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7년 11월, 이백수·권용대·최병준·이정우 교수가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열린 '제56차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 2017년 11월, 12월, 이정우 교수가 경희대학교에서 2017 스포

츠닥터&스포츠치의학 팀닥터 교육프로그램에 강의하였다.

- 2017년 11월, 권용대 교수가 베트남에서 열린 구순구개열 의 료봉사에 참석하였다.

소아치과학교실

-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아동 선발대회가 소아치과 외래에서 개최 되었다.
- 2017년 9월, 김광철 교수가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 2017년 9월, 최성철 교수가 경희의료원 46주년 개원기념식에서 미원임상의학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 2017년 10월, 오예량 선생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수상하였다.
- 2017년 11월, 김광철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쿠스 후즈후' 2018년판에 등재가 확정되었다.
- 2017년 12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후 개관식이 있었다.
- 2017년 12월, 김광철 교수가 경희대학교 학술성취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8년 1월, 최성철 교수가 MBC경제매거진M의 '일반치솔 VS 전동치솔'이라는 주제의 촬영을 외래에서 진행하였다.
- 2018년 2월, 최성철 교수가 경희의료원 명의특투유 강연에 참가하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 2017년 3월, 강수경 교수가 '입 속 불청객, 입냄새'라는 주제로 KBS2 여유만만에 출연하였다.
- 2017년 4월, 홍정표 교수팀이 '잇몸 치료제 성분이 치주질환 완화' 주제로 대한구강내과학회지에 발표하였다.
- 2017년 5월, 어규식 교수가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강연하였다.
- 2017년 5월, 어규식·전양현 교수가 대한측두하악장애에 임원진으로 선출되었다.
- 2017년 6월, 홍정표 교수가 SIDEX 2017 M-session 연자로 강연하였다.
- 2017년 7월, 강수경 교수가 재활의학과 이종하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함께 '통증! 스트레스 근육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하였다.
- 2017년 8월, 전양현 교수가 '잇몸 건강 지키는 똑똑한 치아 건강 관리법!' 관련하여 MBC 기분좋은날에 출연하였다.
- 2017년 10월, 강수경 교수가 대한치과수면학회 주관, 수면무호흡증 기초와 구강내 장치 연수회에서 연자로 강의하였다.
- 2017년 10월, 전양현 교수가 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았으며, 어규식 교수가 '구강안면통증 바로 알기'에 관련한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7년 11월, 전양현 교수가 2017 치과의사국가시험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영상치의학교실

- 2017년 3월, 최용석 교수가 대한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파노라마 진단 영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4월, 최용석 교수가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o-Maxillofacial Radiology에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2017년 8월, '임상가를 위한 도해 구강악안면방사선학'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 2017년 8월, 최용석 교수가 이대목동병원 초음파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영상 진단'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9월, 황의환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2017년 10월, 최용석 교수가 대한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10월, 영상치의학교실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개교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7년 11월, 최용석·김규태 교수가 개최된 제1회 한일세계영상치의학회에 참가하였다.

치과교정학교실

- 2017년 3월, 박영국 교수가 광주우 치과 박람회에서 'Facial Analysi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4월, 박영국 교수가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17년 4월, 김수정 교수가 미국교정학회에서 'Accelerated tooth movement'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5월, 김성훈 교수가 '2017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에서 '유치열과 혼합치열기 교정치료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6월, 강윤구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었다.
- 2017년 6월, 강윤구 교수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11주년을 맞이하여 10년 근속상을 수상하였다.
- 2017년 8월, 박영국 교수가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되었다.
- 2017년 9월, 김성훈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장에 취임하였다.
- 2017년 9월, 김수정 교수가 2017 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에서 'Up-to-date orthodontic manual for sleep-disordered breathing patient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9월, 안효원 교수가 제1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전문치료과정 연수회에서 '고정식 교정장치를 사용한 수술 전후 교정치료'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9월, 김성훈 교수팀(김성훈·김수정·안효원 교수)이 '2017 The Edward H. Angle Research Prize'를 수상하였다.
- 2017년 9월, 김수정 교수가 '미원임상의학상' 은상을 수상하였다.
- 2017년 10월, 강윤구 교수가 강동 경희대 치과병원 기획진료부원장에 취임하였다.

- 2017년 10월, 김수정 교수가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Skeletal expansion modalities for treating obstructive sleep apnea. Are they similar or different?' 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강윤구 교수가 경주 HICO에서 개최된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orthodontic relapse and ways to care it'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12월, 김수정 교수가 제 15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에서 'What happens to upper airway after growth modification?'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월, 박영국 교수가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을 수상하였다
- 2018년 2월, 박영국 교수가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겸 재정예산처장에 취임하였다.

치과보존학교실

- 2017년 3월, 이진규, 장지현 조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7년 4월, 김덕수 교수가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7년 4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열린 한국접착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덕수 교수가 '직접 수복물과 간접 수복물의 접착 차이'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8월, 김선영 교수가 퇴임하였다.
- 2017년 9월, 최경규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7년 10월, 아산병원에서 열린 추계 근치 학회에서 이진규 교수가 '당뇨환자 근관치료'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11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덕수 교수가 '레진 치료 후 발생한 불편감의 원인과 해결방법' 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장지현 교수가 '쉽게, 제대로 알고 하는 Post & Core'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7년 12월, 최경규 교수가 한국 접착치의학회 학회장에 취임하였다.
- 2017년 12월,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접착치의학회에서 최경규 교수가 '직간접 구치부 수복 후 이가 시릴 때 해결방법'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2월, 장석우 교수가 1년 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치과보철학교실

- 2017년 2월 26일, 노관태 교수가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Digital Dentistry Symposium에서 총의치에 관련하여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3월, 이성복 병원장이 '제72회 미얀마 건군의 날' 에 초청받아 참석하였고, 미얀마 보건부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 2017년 6월, 노관태 교수가 코엑스에서 개최된 SIDEX에서 '완전틀니 완전정복'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6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11주년 기념식이 강동경희대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안수진 교수가 우수교직원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17년 6월, '2017년 틀니의 날 특별강연' 행사가 강동경희대병원 지하1층 인산홀에서 개최되었고 이성복 교수, 안수진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7년 6월, 본원 지하 강당에서 틀니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배아란·노관태 교수가 틀니의 유지 관리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7월, 권공록 교수가 본원에서 개최된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마우스가드의 효능과 제작방법'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9월, 노관태 교수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SID 학회에서 'Abutment 선택과 상부 보철 디자인'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9월, 권공록 교수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국제보철학회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2017년 9월, 김형섭 교수가 서울K호텔에서 열린 Neo임플란트 학회에서 'Accurate and comfortable Pick-Cap impression'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9월, 백장현 교수가 연세대에서 개최된 Ivoclar Vivadent 심포지엄에서 'All Ceramic 접착'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9월, 이석원 교수가 보철과장에 취임하였다.
- 2017년 11월, 연세대에서 개최된 제3회 BPS 심포지엄에서 권공록 교수가 'BPS 의치제작과 교합', 노관태 교수가 '난 케이스 솔루션'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7년 11월, 1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대한스포츠치학회 팀닥터 연수회가 본원에서 개최되었고 권공록, 노관태 교수가 '마우스가드의 효과와 제작방법' 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8년 2월, 우이형 교수가 명예퇴임을 하였다.

치주과학교실

- 2017년 3월, The K Hotel에서 개최된 ITI study club에 참석하였다.
-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치주과학회 2017년 제1차 학술 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7년 3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대한치주과학회의 잇몸의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 2017년 4월,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8회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7년 7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대한치주과학회 2017년 제2차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2017년 8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ITI study club을 개최하였다.
- 2017년 9월, The K Hotel에서 개최된 제57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 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7년 12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대한치주과학회 2017년 제3차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약물관련 악골괴사의 재생적 치료 전략

(보건산업진흥원 질병중심중점연구, 질병중심기반연구 일부 지원받아 수행됨)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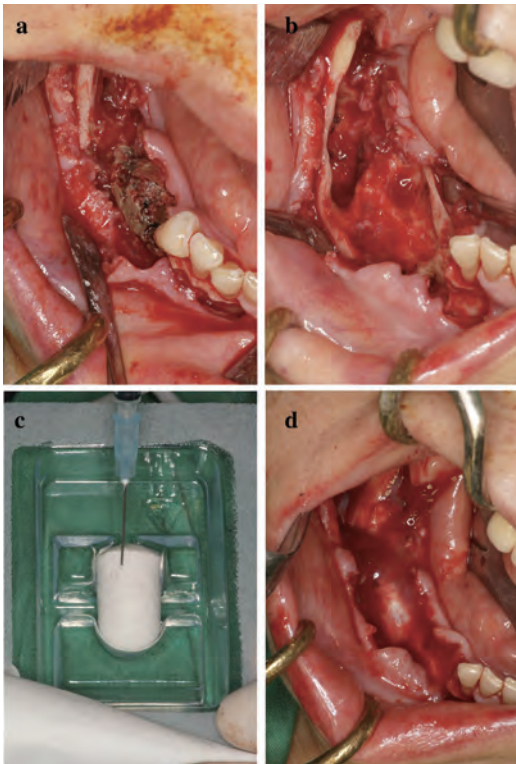
MRONJ란 골다공증, 대사성 골질환, 전이성 골 종양, 류마티스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악골의 골 괴사증을 말한다. 처음 보고 된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표준적인 치료법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상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용량에서 골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34 amino acid fragment of recombinant human parathyroid hormone (PTH) 과, 구강악안면영역에서 골 재생을 위하여 사용 중인 골형성 단백질인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를 이용하여 MRONJ 치료에 있어 병소의 제거 뿐만 아니라 골 재생적 접근 또한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CBCT 이미지의 중첩을 이용하여 재생된 골량을 삼차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Bone remodeling marker 인 serum osteocalcin(s-OC)과 Bone resorption ma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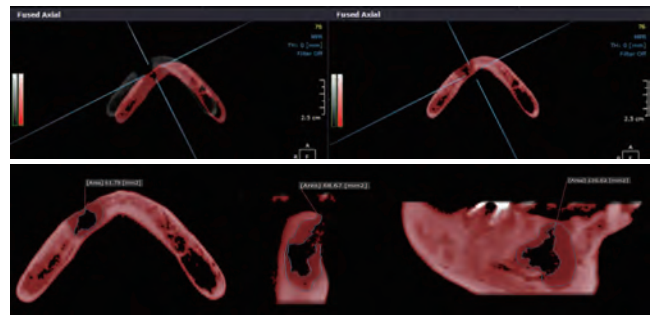
인 serum C-terminal telopeptide cross-link of type I collagen(s-CTX)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보조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MRONJ 환자들은 수술 전 bisphosphonate 제제의 투약이 중단되었으며, 부골제거술이나 분절골절단술과 같은 전통적인 수술적 치료만 받은 환자군은 수술 후 흡수성 콜라겐 플러그만 골결손부에 충전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설정되었다. 수술적 치료와 rhBMP-2, 흡수성 콜라겐 플러그가 사용된 환자는 BMP 그룹, 수술적 치료와 rhBMP-2, 흡수성 콜라겐 플러그, teriparatide 요법(1-4개월 간의 20mg teriparatide daily subcutaneous injection)을 받은 환자는 PTH+BMP 그룹으로 설정되었다.

재생된 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술 후 즉시, 그리고 6개월 후 촬영된 CBCT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OnDemand 3D medical image processing software를 이용하여 axial, sagittal, coronal plane 상에서 술 전 후 이미지를 해부학적 구조물을 따라서 중첩 시킨 후, 골 재생 면적을 측정하였다. 또한 병소의 폭과 높이 역시 측정하였다. s-CTX와s-OC 혈중 농도는 술 전, 술 후 1개월, 3개월에 추적 관찰되었으며, 초기 s-OC값과 술 후 1개월, 3개월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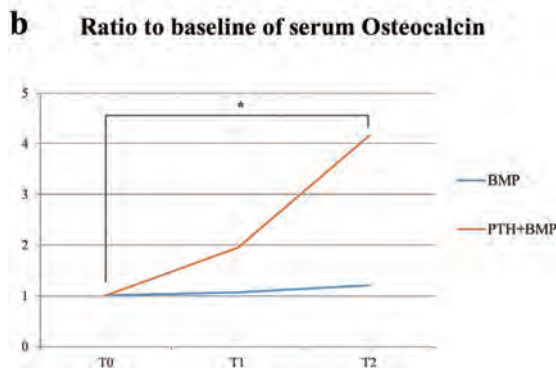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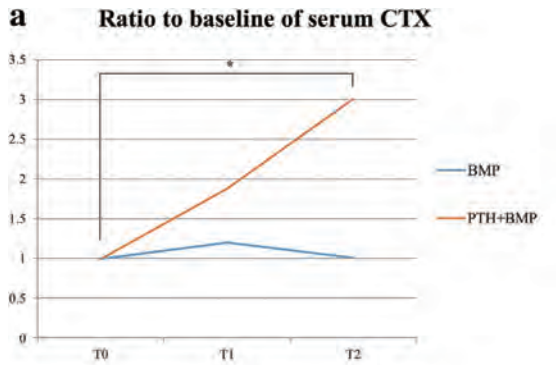


▲ 수술과정 및 콜라겐 플러그 적용 사진 임상 사진



▲ 3차원 이미지의 중첩 과정 및 골재생 면적의 측정

s-CTX 값은 PTH+BMP그룹에서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라 3개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BMP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OC값도 같은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BMP 그룹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에 유의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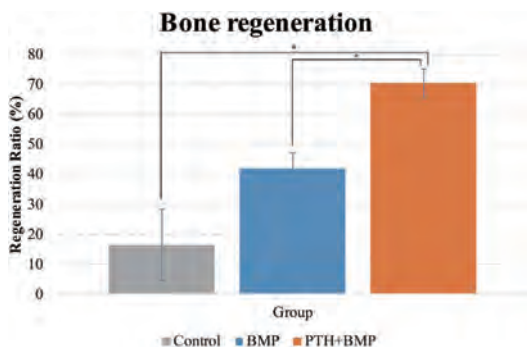
▲ s-OC와 s-CTX level 비교

. At midportion of initial bony defect
 Axial plane (mm²)+Sagittalplane(mm²)+Coronalplane(mm²)=Initialdefectarea(D)(mm²)

. At regenerated bone area
 Axial plane (mm²)+Sagittalplane(mm²)+Coronalplane(mm²)=Regeneratedarea(R)(mm²)

. Regeneration ratio (%) = Regenerated area(R)(mm²)/Initialdefectarea(D)(mm²)x100

위 공식에 따라 regeneration ratio (R/D) 를 구하였으며, PTH+BMP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MP그룹과 대조군에 비해 골재생 비율이 높았다. BMP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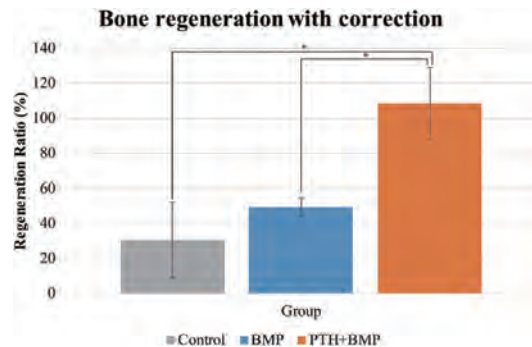


▲ 골재생 면적의 비교

넓고 얇은 골 결손부는 깊고 좁은 결손부에 비하여 골 재생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결손부의 형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기 골 결손부의 width/depth (w/d)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corrected regeneration ratio (corR/D)' 값을 구하였다.

$$\text{corrected regeneration ratio (corR/D)} = \frac{\text{Regenerated area (R)(mm}^2\text{)}}{\text{Initialdefectarea(D)(mm}^2\text{)}} \times \frac{\text{width}}{\text{depth}} \times 100$$

corrected regeneration ratio 값 비교 결과, PTH+BMP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MP그룹과 대조군에 비해 골재생 비율이 높았다. BMP 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골결손부의 형태를 고려한 골재생 면적비교

본 연구 결과, short-term teriparatide 요법이 MRONJ 환자의 저하된 골 재생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마찬가지로 s-CTX and s-OC 수치 또한 증가됨이 밝혀졌다. rh-BMP는 골 유도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술 시 국소 적용으로는 짧은 약물 작용 시간으로 인하여 제한된 효과만을 가짐을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MRONJ 환자들은 대개 고령에 bisphosphonate 복용으로 인하여, 취약한 골 치유에 있어 매우 취약하며, 수술 후에도 창상 치유 지연이나 골 결손부의 잔존으로 인하여 많은 수술 후 합병증을 겪게 된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거나, 이번 연구는 MRONJ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후 골 재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적인 치료법을 제안하며, 3차원적 분석 결과, 기존 치료에 비해 양호한 효과를 얻었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Jung J, Kwon YD, et al., Short-Term Teriparatide an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for Regenerative Approach to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7 Dec;32(12):2445-2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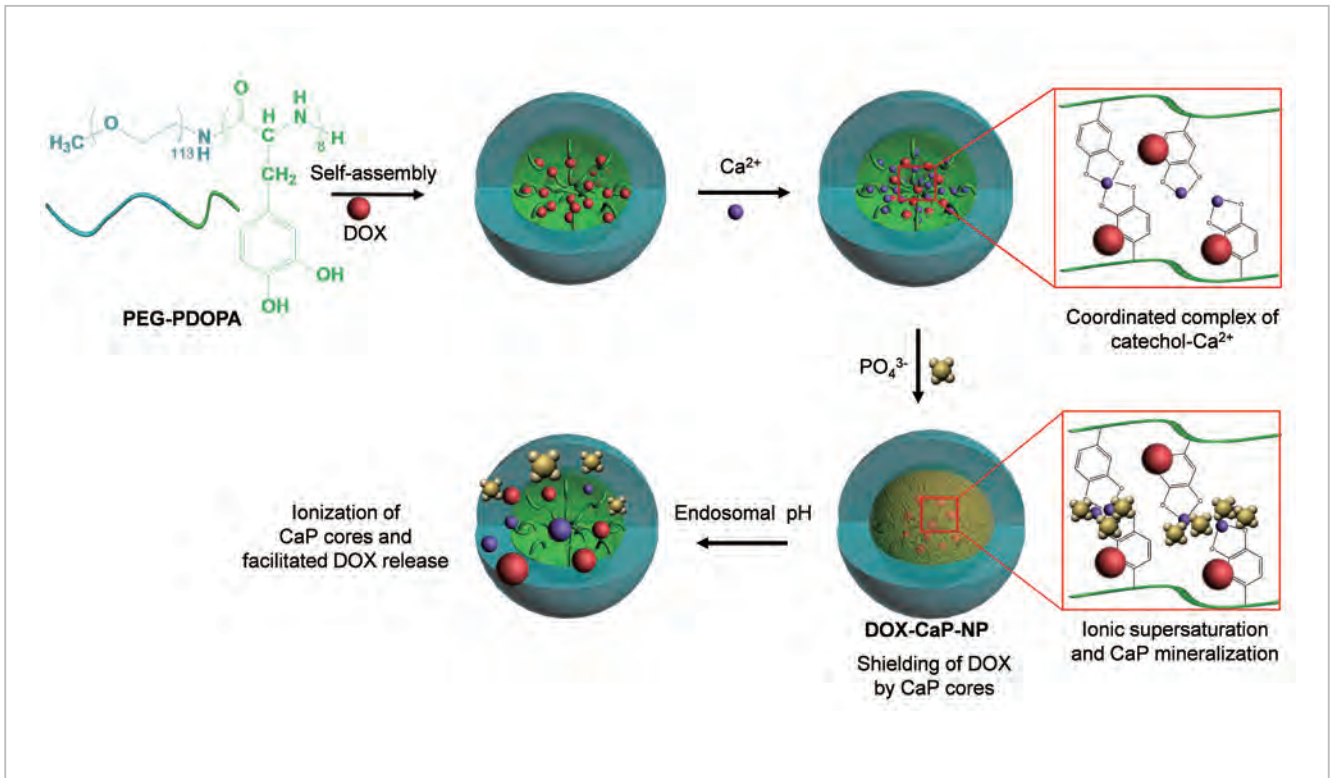
천연 미네랄이 융합된 똑똑한 암 선택적 나노항암제

약안면생체공학교실 이상천 교수

본 연구진은 융합 접착단백질 아미노산 구조에 기반한 미네랄화 기술을 이용하여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의 세포 내 전달을 위해 인산칼슘(CaP)으로 조립된 고분자 나노입자(NP)를 개발하였다. Poly(3,4-dihydroxy-L-phenylalanine) (PDOPA)로 형성된 core와 poly(ethylene glycol) (PEG) shell로 구성된 DOX 담지 core-shell 고분자 나노입자(DOX-NP)는 CaP 미네랄화를 위한 나노템플레이트로 사용되었다. PDOPA core 부분에 침착 되어있는 CaP 미네랄이 DOX-CaP-NP가 생체내 pH에서 견고한 구조를 유지하고 DOX가 방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반면, 엔도솜 pH에서는 CaP core가 용해되면서 DOX 방출의 촉진을 유발시켰다. DOX-CaP-NP는 우수한 전달 효율을 갖는 견고한 나노입자로서 화학요법을 활용한 항암치료를 위한 나노전달

체로 효과적인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수한 전달 효율을 갖는 지능형 나노전달체가 성공적인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생체 흡수성 무기물이 조립된 고분자 나노전달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나노전달체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산칼슘(CaP)이나 탄산칼슘(CaCO₃)을 포함한 바이오미네랄이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다. 바이오미네랄은 고유한 특적인 견고성 외에도 pH 의존적인 용해 특성을 보여준다. 즉, 안정한 구조로 세포 외 PH에서 미네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종양 혹은 엔도솜의 산성 pH에서는 미네랄이 이온으로 용해된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미네랄 특성이 항암화학치료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pH 반응성 전달체 개발에서 매력적인 기술로서 활용되고 있다.



▲ PEG-PDOPA 나노템플레이트를 이용한 DOX-CaP-NP 제조방법 및 엔도솜 pH에 의한 DOX 약물방출

카테콜 아미노산 3,4-dihydroxy-L-phenylalanine (DOPA)은 홍합의 점착성 발 단백질 (Mefp-5, Mytilusedulis foot protein-5)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DOPA의 카테콜기 OH부분은 Ca, Fe, Mn, Ti, Zn과 같은 메탈이온과 강하게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DOPA를 홍합에 영감을 얻은 미네랄화 템플레이트로 다양한 소재의 표면에 CaP의 핵형성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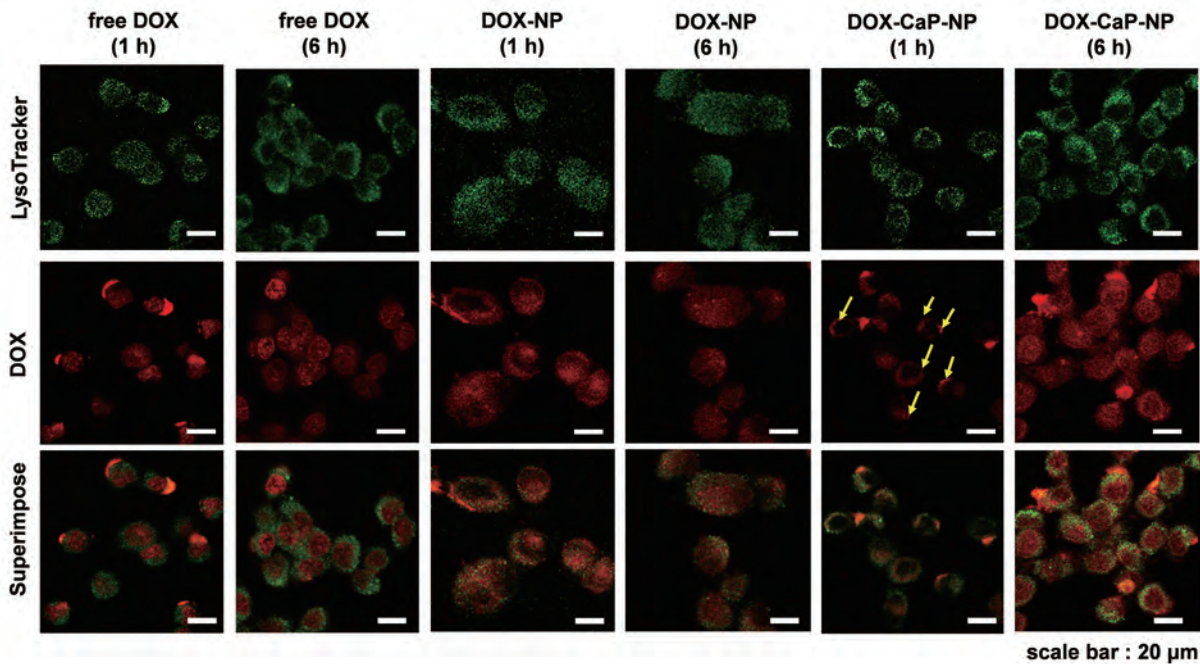
본 연구진은 PDOPA를 이용한 미네랄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CaP 미네랄화 나노전달체를 만들었다. 그림 1과 같이 DOX가 담지된 나노입자 (DOX-NP)는 DOX와 함께 PEG-PDOPA의 자가조립을 통해 만들고, 구성된 core-shell형의 나노입자에 칼슘 양이온 및 포스페이트 음이온을 연속적으로 첨가해주면 나노입자의 PDOPA부분에 선택적으로 CaP 미네랄 core가 형성된다. 제조한 입자(DOX-CaP-NP)는 약 154nm의 크기를 가지며, EDX 분석을 통해 core층에 CaP의

구성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나노입자는 10.8%의 DOX를 함유하고 있고 입자 core에 침착된 CaP는 입자가 강력한 구조를 유지하게 해주어 세포 외 pH(7.4)에서 DOX 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반면, 암조직 pH(6.4)나 엔도솜 pH(5.0)에서는 CaP의 용해로 약물 방출을 촉진시켰다.

MCF-7 암세포에서 DOX-CaP-NPs의 IC₅₀값이 6.59 mg/mL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2와 같이 나노입자의 세포 내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나노입자 처리 후 1시간 뒤 약물이 엔도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DOX가 CaP core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시간 후에는 엔도솜의 낮은 pH에 의해서 CaP가 용해되어 DOX가 용이하게 엔도솜을 빠져나와 효과적으로 세포 전체에 고루 분포할 뿐만 아니라 세포핵까지 잘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간에 따른 DOX-CaP-NP의 세포내 분포

이 연구를 통해 PDOPA가 CaP 미네랄화를 위한 효과적인 템플레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DOX-CaP-NP가 pH 반응성 약물전달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PDOPA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미네랄 나노입자가 다양한 난용성 항암제의 세포내 나노전달체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H.Y. Nam, et al., Mussel-inspired poly(L-DOPA)-templated mineralization for calcium phosphate-assembled intracellular nanocarriers, *Colloids and Surfaces B: Biointerfaces* 157 (2017) 215 – 222.

박영국 부총장 인터뷰



“세상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성이 찾아왔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도록 해야.”

Q 교수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주로 논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 관련 문서를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분 단위로 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학교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회의의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용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바쁘다 보니 손주 볼 시간도 많이 없네요.

Q 치과대학 교수로서의 삶과 부총장 취임 후 현재가 많이 다르신가요?

A 예전에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오로지 치과교정학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치과대학 교수로서 학교로 돌아와보니, “교정학회가 없어져도 대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다보니, 세상을 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 본부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치과대학이 없어져도 경희대학교에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앞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더 큰 관점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세계치과 의사연맹의 일원이 되면서는 글로벌하게 치의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해야 할 일들 등에 대해 눈을 떴고, 대학 본부에 올라오면서는 인문학적인 식견, 끊임없는 학습 등에 대한 가치에 눈을 또 뜨게 되었습니다. 치과대학에서 근무할 때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또다른 세상에 대해 눈을 뜨고, 배움에는 역시 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라.” 고 하였는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Q 여가 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즐기시나요?

A 부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여가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대외협력부총장은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사람들 및 단체들 즉, 학술기관, 동문, 지역사회,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 국제기구 등과 교류, 협력하는 일을 합니다. 주 중에는 학교 내부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학교와 관련된 대외 관계자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가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치과대학장으로 근무하시던 때를 돌아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치과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두 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 두 번째는 학교의 위상, 평판도 제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시 치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필요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학교의 위상 및 평판도 제고에 관해서는, 우리 대학이 실제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평가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미 서열화되어 고착화된 대학 순위가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깨뜨리기 쉽지가 않겠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글로벌한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Q 대외협력부총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대외협력부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처무규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목표는 경희대학교의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00여개 대학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학은 250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Youtube에만 들어가더라도 수도 없는 정보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의 기본 사명은 정보와 지식을 생산(연구)하고 유통(교육)하는 것이인데, 대학다운 미래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치과대학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치과대학을 생각해 보니, 치과대학은 2018년에 1980년대의 패러다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치과대학의 교육목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인데, 과연 치과대학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치과대학은 타 과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 교수들이나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간디가 말한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치의학

도로서, 치의학 연구자로서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Q 전공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성공은 100% 행운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저 행운에 의해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운은 찾아오니, 운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릇이 작아서 그 운을 담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열심히 그릇을 키워놔야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담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치과라는 작은 그릇만 가지고 있기 보다는, 세상에는 그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성이 찾아왔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commitment’입니다. 이것이 ‘do’와 다른 점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바쳐’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Commitment를 행하는 두가지 방법은 integrity와 honesty, 즉 완전성과 정직함입니다. 중용 23장에 보면 ‘곡능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면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곡능유성은 integrity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onesty란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그릇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치과라는 작은 그릇 안에 갇혀있지 말고, 더 큰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기 위해 온 몸을 다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릇으로 행운이 찾아왔을 때 꼭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동문회소식

동창회 이사회 동정

- 3월13일 경희동문과 함께 하는 재개발 프로그램
- 장소 :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10층
- 연자 : 홍정표교수, 최경규교수
- 3월24일 목련회 (인천동문회) : 안민호회장
- 4월19일 50주년 사업단 모임
- 장소 : 경희치대학장실
- 참석 : 최웅대부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박영국학장, 황의환부학장, 배아란교수, 박기호교수
- 5월24일 50주년 사업단 모임
- 장소 : 경희치대학장실
- 참석 :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박영국학장, 황의환부학장, 배아란교수, 박기호교수
- 6월18일 전국치대동창회 골프대회 (강릉샌드파인)
- 6월19일 50주년 사업단 모임
- 장소 : 경희치대학장실
- 참석 :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박영국학장, 황의환부학장, 배아란교수, 박기호교수, 김석훈원장
- 7월12일 경희치대정기이사회 및 기회장 연석회의 (동보성)
- 7월19일 50주년사업단모임
- 장소 : 황궁
- 참석 : 안민호회장, 최웅대부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박영국학장, 황의환부학장, 배아란교수, 박기호교수, 김석훈원장
- 8월18일 발전기금위원회 (경희치대학장실): 조선경부회장
- 8월31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골프대회 (88CC)
- 참석 : 107명 (27팀), 개인전 우승 이성만동문
- 9월5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 및 50주년사업단회의
- 장소 : 경희치대회의실
- 참석 : 박영국학장, 황의환부학장, 배아란교수, 박기호교수, 김석훈원장,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 9월20일 연대동창회 임원들과 만남
- 장소 : 바시락바다한정식
- 참석 :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김소현이사
- 9월25일 운영위원회
- 장소 : 아루
- 참석 :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윤종상이사, 최재용이사, 권태훈이사
- 10월13일 고향치전
- 장소 : 경희대르네상스관
- 참석 : 안민호회장, 조선경부회장, 권태훈이사

- 10월21일 경희치대개교50주년기념식 (평화의 전당)
- 10월22일 경희치대개교50주년 학술대회 (평화의 전당)

동창회원 조사/경사

2017년

- 3월5일 16기 최대영동문 병모상 (전북대병원장례식장)
 - 3월14일 11기 이종태동문 본인상 (강동경희대병원장례식장)
 - 3월16일 19기 임수환동문부친상(전북대병원장례식장)
 - 3월22일 15기 허 익동문 모친상 (경희의료원장례식장)
 - 4월11일 13기 이연주동문 부친상 (아산병원장례식장)
 - 5월2일 1기 정충모동문모친상 (청주참사랑병원장례식장)
 - 5월9일 13기 최병철동문 모친상 (서울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 6월3일 12기 황의환동문 장녀 결혼 (플라자호텔그랜드볼룸)
 - 6월5일 8기 노홍섭동문장모상 (창원삼성병원장례식장)
 - 6월16일 19기 장일우 동문 모친상 (속초의료원장례식장)
 - 7월20일 7기 정영균동문 본인상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8기 최호근동문 모친상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 7월21일 10기 오원근동문 모친상 (역삼동성당장례식장)
 - 7월31일 16기 이상주동문 부인상 (고대안암병원장례식장)
 - 8월7일 12기 최화석동문부친상 (창원시시립삼복공원)
 - 8월14일 23기 이연신동문 부친상 (수원아주대병원장례식장)
 - 9월11일 24기 최영심동문부친상(강릉동인병원2호실)
 - 9월12일 26기 최재영동문부친상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 9월28일 11기 권기열동문 부친상 (혹석동 중대병원장례식장)
 - 10월1일 10기 공선식동문 모친상 (아산병원장례식장)
 - 10월13일 23기 우정석동문부친상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 10월24일 8기 배호진동문 아들결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 10월27일 14기 정연식동문부친상 (단국대학교병원장례식장)
 - 11월27일 18기 김방수동문 모친상 (아산병원 장례식장)
 - 12월10일 24기 정셋별동문 부친상, 함동선동문 병부상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 12월16일 6기 이원화동문 모친상, 3기 조호구 동문 병모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 12월21일 13기 문경모동문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 12월22일 27기 이성희동문 부친상, 모친상 (제천제일장례식장)
- ### 2018년
- 1월13일 12기 공화수 동문 모친상 (강남삼성병원 장례식장)
 - 1월16일 12기 한문식동문 본인상 (아산시 신정장례문화원)
 - 2월22일 15기 신동근 국회의원 모친상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 2월27일 18기 정경화동문 본인상 (부산 침례병원)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341~2 E-mail. khsc0800@khu.ac.kr